

웃둥 보살 빛둥 거사 <59 · 끝>

구성 : 김흥민



소금만 먹은 사람

<백유경(百喻經)>



옛날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싱거워 맛이 없다고 불평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음식에 소금을 넣어주었다. 그는 소금을 넣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음식이 맛있는 것은 소금 때문일 것이다. 조금만 넣어도 맛이 나는데 하물며 많이 넣을 때와 견주겠는가'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무지하게도 소금만 먹어댔다. 그 결과 입맛이 떨어져 도리어 병이 나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외도들이 음식을 절제해서 도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7일 또는 보름 동안 음식을 끊은 결과, 배만 고파지고 깨달음을 얻는 데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과 같다. 저 어리석은 사람이 소금이 맛있다고 생각해 그것만 먹어 결국은 병이 난 것처럼 이것도 그와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삼생동안 서로 만나다 삼생상우(三生相偶)



고려판화박물관 소장 삼생상우(三生相偶) 목판사본 1673년경(행, 반각(半部) 27.2 x 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원관(圓觀)이 낙양의 혜립사에서 은사(隱士)인 이원과 아미산 천축사를 가다가 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12년 후에는 천축사에서 소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이안에게 밥을 설하는 모습을 통해 삼생을 통해 만나는 광경을 시간대별로 판각한 작품이다. '이원방원관(李源訪圓觀)' 이야기의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원관 스님과 이원 두 사람이 아미산(峨眉山)으로 구경 가다가, 어느 지방의 길에서 한 여인을 보고 원관 스님이 "내가 저 여자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태어난 지 사흘 후에 찾아오면 당신을 보고 웃을 테니 그러면 내가 확실한 줄 아시오. 그리고 열두 해가 지난 뒤 천축사로 찾아오시오"라고 말했다. 원관 스님의 이야기가 너무 이상해서 이원이 스님의 말대로 수소문해서 여인의 집을 찾아가 보니 사흘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었다. 이원이 아이를 보자 그 아이는 이원을 보고 웃었다. 이원이 이모처럼 그 아이가 원관 스님의 환생인 줄 확실히 알았으며, 그리고 12년이 지난 뒤 팔월 추석날 이원은 천축사로 찾아갔다. 갈홍천(葛洪川)이라는 개울이 있는 곳에 이르자 달이 환히 밝은데 저쪽을 보니 웬 조그만 아이가 소를 타고 노래를 하며 오고 있다. 이 노래를 듣고 이원이 달려가 절을 하고 말했다. "원관 스님! 건강하십니까?" 그러자 목동이 대답했다. "이 공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선비요, 나와 그대는 길이 다르니 삼가 서로 가까이 하지 맙시다. 그러나 세간

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오직 부지런히 수행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곧 다시 서로 만나게 될 것이요." 아이는 저만큼 떨어져 소를 타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었다. 이원은 그제야 그 스님이 도를 통한 큰스님인 줄 알고, 더 가까이 해 법문을 듣고 공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돌아가서 열심히 수행했다. 원관 스님은 삼생을 걸쳐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는 자유자재한 삶이었다. 성철 스님께서는 법어집에서 이 이야기를 전생의 일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며 자유자재한 것이기에, 영겁불망하는 대자유인의 삶을 표현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교관화박물관 관장)

시가 있는 도량

동학사

동학사 오르는 길 물푸레가 길을 연다	어디서 계속 물소리 빈 그늘을 흔들고
햇살에 부풀 팥죽 싹뚝이 투명하다	아직은 온통 잣뿔, 연초록 언덕 물드나
저 가지 물에 꽃음너 보랏빛으로 물들까	물푸레, 물푸레나무 나지막이 부르면
결빙의 이야기들이 잔설로 쌓여져 있는	산문에 오르는 길이 물빛으로 환해진다
가파른 산허리를 지친 몸으로 오른다	-박지현 21세기시조동인지 <건반과 고베>

대관신청기간 : 2009년 9월 30일까지

2010년 대관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2층 전층 436평

- 전관 1360㎡(412평) (공유면적포함)
- A관 700㎡(212평) "
- B관 660㎡(200평) "
- 1관 554㎡(168평) "
- 2관 462㎡(140평) "
- 3관 343㎡(104평) "
- 사무실 80㎡(24평) "

첨단 전시 시설을 갖춘 대형 전시장!!

한국미술관은 대표 화랑가인 인사동의 중심 인사동사거리에 위치한 대형 전시관으로서 국내외의 관광객은 물론 미술 애호가,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시 작가들의 작품 홍보에 최적의 위치로, 최상의 전시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관신청 문의 및 접수

TEL : 02)720-1161-2
H·P : 011-275-4330 관장 이흥연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 대일빌딩 2층
홈페이지 : www.koreagallery.co.kr

불자가 개관한 미술관입니다. 불교서적과 미술서적을 전문으로 출간하는 이화문화출판사에서 미술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불자님과 스님의 전시를 정성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167-2
TEL 02)732-7096~7 / Fax 02)738-9887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